

國際工業所有權界 움직임 부산

EPO · 美國 · 日本 · 노르웨이 등

E P O

審査官 대폭 增員

유럽特許廳(EPO)은 급증하는 特許出願에 대비, 금년중에 2백70名の 審査官을 채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오는 90年代 중반까지 약 1천2백명의 審査官을 增員할 계획이다.

현재 EPO의 審査官은 1천3백명이다.

美 · 日 · E P O

情報交換 擴大 合議

美 · 日 · EPO는 최근 3國 特許廳間의 情報交換 프로젝트 및 運用의 하모나이제이션 등에 관해 合議했다.

노르웨이

PCT Ⅱ章 철회

노르웨이 정부는 特許協力條約(PCT)의 第2章(국제 예비심사) 유보철회를 지난해 10월 1일 WIPO 사무국에 통보함으로써 금년 1월 1일 효력이 발생

되었다.

日 通産省

知所權 對策室 설치

日本通産省은 최근 知的所有權 紛爭의 실태등을 調査할 知的所有權對策室을 설치했다.

이는 앞으로 知的所有權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美國의 동향등에 관하여 종합적인 對應策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

● P C 特許料협상 지연 ●

美國의 IBM과 국내퍼스컴 업체간의 特許料協商이 지연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IBM측은 당초 작년말까지 特許料協商을 타결짓는다는 방침아래 美本社의 特許專門家들을 국내에 파견, 주요 퍼스컴업체들과 개별접촉을 가졌으나 최종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협상 매듭시기를 2~4개월 늦췄다.

IBM은 지난해 6월 전세계

적으로 IBM퍼스컴 호환기종을 생산하는 업체에 대해 特許料 지불을 구한바 있다.

特許料 요구내역은 신제품인 PS2는 물론 기존의 XT·AT기종에까지 소급적용, 88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판매분에 대해서는 총매출의 1%, 이후판매에 대해서는 2~3%, PS2가 최고 5%까지로 되어 있다.

이같은 조치는 美國등에서

IBM 시장을 잠식해가고 있는 우리나라나 臺灣등 외국의 호환기생산업체(클론)들을 겨냥한 것으로 국내업체로서는 커다란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

IBM측은 지난해 하반기 또다시 特許料率을 높여 12월말까지 特許料協商에 응하지 않을 경우 오른 特許料를 적용하겠다고 발표, 조기협상을 촉구해 왔다.